

DPI,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02년 이어 2년 연속 ... 이미지 제고와 품질경쟁력 향상 계기

DPI가 10월2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시상식에서 2002년에 이어 2년 연속 50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제조업 및 건설업을 대상으로 13개의 심사항목에 의거해 산·학·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진단을 거친 후 공개적인 재평가에 의해 선정된다.

13개의 심사항목은 전략 및 관리시스템, 기업문화/인재육성, 정보분석관리, 품질시스템, 제품개발, 소집단 개선활동, TPM, CS, SQC/SPC, 물류, 제품안전/책임(PL), 신뢰성, 경영성과 등이다.

선정기업에게는 산자부 장관의 증서와 패를 수여하고 국내외에 널리 공표하므로써 홍보 및 판로를 지원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업에게는 ▷KOTRA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업계에 선정 기업 명단을 무료 배포해 홍보를 해주며 ▷산업별, 평가분야별로 우수사례집을 별도 발간해 관련단체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보급하고 ▷국가품질상 및 개인포상, 공산품 사후봉사(A/S)우수기업인증 등 정부포상 및 인증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DPI는 “2년 연속 품질우수기업 선정으로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10>